

[상하이] 주요산업 복구복산(复工复产) 정책 동향

- '22.4.27.(수), 상하이무역관 -

□ 동향

○(상하이시 현황) 3.28부 2단계 전면통제 돌입, 현재 전체 市 봉쇄 미해제

- 주요산업 및 물류운송 경색으로 중국 중점산업(완성차·반도체·대외무역) 경기하방 압력 ↑ ⇨ 중점산업부터 점진적 복구복산 추진
- 중앙정부에서 '복구복산 중요성 강조' 하달 이후, 상하이시에서도 점진적으로 세부 정책 수립 중

○ 중앙 및 상하이시정부 정책 발표 연혁

일자	관련기관	내용
4.5~ 중순	상하이 경신위	조업중단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등 현지 산업계 우려를 토대로 상하이 실무그룹 파견, 차량산업, 반도체 집적회로, 바이오의료 등 중점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4.13	시진핑 총서기	과학적이고 정밀한 방역통제 강화로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해야함을 강조
4.16	상하이 경신위	<p>상하이시, <1차 복구복산(复工复产) 정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전염병 예방통제와 '생산경영 전문팀 설치로 주체적 책임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폐쇄적 순환관리 계획(1개사1개정책) 수립 → 관련 시, 구 부처 예방통제부서에 보고, 심사비준을 받은 후 조업 생산재개 가능 - 1차 복구재개 예정기업 (666개사) : 자동차(37%), 방역물자(17%), 바이오의료(12%), 반도체(13%), 인프라(전력·통신·교통·건설)(8%), 생활용품(6%), 화공(5%), 전기전자(3%) 順 <p>※ 1개기업 1개정책(一企一策) 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간 구분 관리 철저 공장구역, 생산구역, 생활구역, 공공장소 등 공간 구분 관리. 외부환경 접촉 정도에 따라 방역용품(마스크 등) 착용 (2) 기업 인원관리 모든 임직원 분류 및 등록 완전 폐쇄식 관리, 전체 인원 건강모니터링 2회/일(아침/항원검사, 저녁/핵산검사), 직원 코로나19예방접종 완료해야 함 각기 다른 작업반 사이 접촉없이 교대, 외출 최소화, 생산자-거주지간 이송 실시, 외부인원 진입 통제 등 (3) 물류관리, 방역물자 비축 강화 물자의 경우 입출고시 타 지역과 구분 격리, 입출고시 고정인원 배치하여 접수, 하역, 소독 등 작업 실시
4.18	국무원	<p><전국 산업, 공급체인 안정화 원격회의></p> <p>국가 통합 통행증 발급 촉진 차량 집적회로, 대외무역 등 핵심산업 공급망 안정화 추진 순조로운 화물 운송을 보장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화이트리스트 제정 촉구 ⇨ 회의 이후, 전국 도로 교통 통제 현황 전수 조사, 불필요한 통제 해제</p> <p>* 24일 기준 전국 폐쇄고속도로 수 10개, 10일 668개 대비 98.53% 감소</p>
4.21	상하이 방역부	상하이시 '조업재개 인원 복귀 전자통행증' 도입*
4.22	상하이시 (부시장)	<p>전체 시 기업의 조업 재개에 대한 총체적 방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차적 연쇄적 추진의 기본 원칙에 의거 추진 : 도시운영, 방역물자기능보장 중점기업 외에 장강삼각주와 전국 산업시슬 공급망에 영향이 큰 대형 산업시슬 기업군이 먼저 기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전력 지원 - 기업의 조업 재개를 위한 서비스 보장 강화 디지털 방식으로 복귀 인원에 대한 전자통행증 발행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직원이 복귀 후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함 향후 코로나19 형세가 호전됨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의 순차적인 조업 재개를 지원할 것

4.23~ 현재	상하이 각 구정부	상하이시 구(區)별 특성에 따른 복공복산 추진 계획 잇달아 발표 중 - 자딩구: 차량 산업체인 관련 기업 다수(1차 명단내 자딩구 소재 차량기업 97개사). 폐쇄식 조업재개 추진 중이며, 2차 복공기업 리스트 확정 중 - 양푸구: (대형마트, 주거지 등 밀집지역) 조업재개 기동으로 핵산검사 수요 급증 예상. 구역내 상시 핵산검사소 배치 중. 물류, 택배기사 등 복귀인원 검사수요 충족에 정이며, 대형마트 등 밀집지역 내 검사소 배치로 '15분 점검 서비스' 권역 조성 - 칭푸구: 공업기업 복공복산 방역통제 작업 가이드라인 발표 * 이후 각 구정부 순차적 발표 전망
-------------	-----------------	--

□ 상하이시 '복공증(复工証)' 도입 세부내용

- 도입목적: 중점기업 조업 재개 가속화 및 인원 복귀 추진, 중점산업 공급망 안정을 보장.
- 신청조건: 상하이시 조업재개 '화이트리스트'에 속한 기업. 직원 소재 건물 내 7일 이내 양성환자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①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소재 구정부 조업재개 부서 또는 관련 부서에 '복공증(复工証)' 신청
- ② 각 구 또는 관련 기관은 복귀 인원 정보 검토 및 선별후 복귀인원의 명단 시 경신위 제출. 시 경신위는 명단 확인 후 상하이시 빅데이터센터 협조 하에 복귀 대상 인원에게 '복공증 발급

- '복공증' 내 포함 3가지 정보: ①개인신분 정보(성명, 신분증번호, 사진, 발급부서 직인, 발급일자)사회보장번호, 사진, 거주지 주소 등) ②직장정보(직장명,주소, 발급부서 및 직인, 발급일자) ③방역정보(건강코드, 48시간 이내 핵산검사 결과 등)

○ 사용 절차

- ① 화이트리스트 등재 기업은 해제 및 복귀필요 인원 정보를 구 조업재개 부서 등에 보고*

* 제출정보: 직장명, 직장 사회신용코드, 직장주소, 복귀인원 정보(성별, 신분증, 연락처, 주소(구체적으로 해당 동까지), 소재 행정구, 소속가도, 주민위원회, 밀접(密接) 여부, 2차밀접(次密接) 여부, 거주 동(樓棟) 내 7일 이내 양성 발생 여부, 거주 동(樓棟) 밀접 발생 여부, 거주단지 통제 상황, 직장 의견 등

- ② 복공증 제시: 복귀 인원은 소속 주민위원회에 외출 허가 취득. 주민위는 복귀 인원의 신분증과 '복공증' 확인후 사진 촬영으로 보관. 거주 동에서 7일 이내 양성 미발생 확인, 현장에서 항원검사 실시후 음성 판정 시 외출 허가. 소재지나 단지에서 최근 핵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복귀인원이 48시간 이내 핵산 음성증명이 없을 경우, 현장 항원검사 음성결과로도 외출 허용 가능.

* 주민위는 조건에 부합하는 복귀 인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모두 외출을 허가해야 함

- ③ 인원 복귀: 기업은 해당 인원을 완전 폐쇄적 환경 하에서 복귀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함. 복귀 인원은 점대점(點對點) 방식으로 기업 도착 직 후, 핵산검사 실시, 일시적 격리에 들어감. 해당 격리가 완료된 후 생산 투입

* 방법구역 복귀 인원 1일, 핵산 검사 1회 실시, 비방법구역 복귀 인원 2일, 기간 내 24시간 간격 핵산 검사 2회 실시 조건

- 인원 생산 복귀 후 기업은 폐쇄식 생산 관리 실시. 특히 금산(金山), 봉현(奉賢) 등 중점구역에서 우선 시범 실시

□ 총 평

- 2~3월이후 코로나19 확산세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2개 지역 상하이, 지린성은 중국 GDP 비중 각 3.8%, 1.2% (2021년 기준)

- 특히 상하이와 지린성은 중국 주요 차량 생산기지로, 3월 이후 확산세 여파로 주요 차량 브랜드(이치폭스바겐·화젠bmw·상해기차 등) 3월 생산 감소폭 모두 30% 내외로 급락
- 지린성은 **사회면 제로화 달성 발표(4.14, 봉쇄후 약 45일 소요)** 이후, 산업 재가동 가속화 중. 지난 4월 20일 지린성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질서 회복 등 조치 총괄 통지>를 발표하며, 산업체인 공동복귀 추진 지시. 현재 지린성은 대기업·규모이상의 공업 기업, 중소·중견기업 순으로 조업 재개를 추진해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음
 - * 대기업의 경우 창춘 소재 5개 공장 모두 재가동, 지린성 내 500개 중점 업체 재가동
 - *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지린성 전체 조업 재개율 96.3% 도달

○ 주요 공업의 조업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동북지역 **코크스(원료) 공장 가동률은 4월 초 63.4%에서 69%로 소폭 상승세 시현**

○ 상하이는 중국 차량반도체 산업의 요충지로, 도시 봉쇄정책은 상하이 전역의 공업경제 운행에 큰 영향을 미침. 상하이시의 3월 공업생산액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하여 1분기 전체 시의 규모이상 공업 총생산액 4.8% 증가율에 그치는 등 **증가 속도 둔화 양상***

* 2021년 1분기, 시 규모이상 공업 총생산액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34.5% 증가, 직전 2개년도 평균 증가율 5.2%

○ 지린성이 지난 4월 14일 사회면 제로화 달성 발표 이후 본격적인 재가동에 돌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 상하이도 **사회면 추가 감염자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주요산업을 우선으로 한 생산 회복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4월 16일 상하이시 경신위 발표 <상하이시 공업기업 조업재개 지침(제1판)>에 따라 조업재개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산업사슬 공급망 안정 도모. 이와 동시에 <1차 화이트기업 목록> 666개사를 확정하여 공장 재가동을 허용하거나, 재가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1차 목록은 자동차 및 부품업체 37%, 의료보건 29%, 반도체 13% 비중. 화이트리스트 발표 당시 1차목록 기업 45%는 공장 가동 중단상태였으며, 현재 약 70% 조업 재개에 들어감

- 4.27일자 상하이시 브리핑에 따르면, **동태적 제로화 방침은 고수하는 한편 사회면 제로화를 달성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조건부(인원제한, 지역제한, 활동제한) 해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 단, 시기는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 있음. 27~30일 기간 '핵심+항원 조합 방식'으로 전체 시 선별작업 실시. **검사 결과에 따라 '봉쇄 통제 방법 3구역 범위를 동적으로 조정할 예정**

* 사회면 제로화 미달성 구역은 '전구역 정태관리, 전원검사' 방식 지속

*** (참 고) 사회면 제로화와 동태적 제로화 차이**

- 사회면 제로화(社會面清零) : 감염자 및 접촉자 격리 조치 후 사회를 정상 활동 장소(사회면)와 격리 관리통제 장소 2개로 나누어 관리. 사회면 지역에서 추가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격리통제 장소로 이동 조치하여 사회면의 제로코로나를 유지하는 방식. 이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초기에 차단되었음을 의미하며, 점진적인 봉쇄해제의 전제조건이자 중국 방역통제의 주요 목표임. 상하이 정부는 '사회면 제로화를 '동태적 제로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있음.

- 동태적 제로화(動態清零) : 중국정부가 코로나19 방역통제에 있어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는 기본 원칙과 목표. 지역내 감염사례 발생시, 모든 정부기관이 신속하게 "발견 즉시 제거"의 방식으로 전염 사슬을 차단하고, 사회면에서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태'란, 감염률 0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제로화'는 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막는 기본을 지키는 것을 의미함

붙임 : (참고) 조업재개 인원 복귀 전자통행증



끝